

보도일시	2021. 8. 10.(화) 조간 *인터넷 2021. 8. 9.(월) 12:00 이후 / 총 6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과 장 송유나	044-202-7190
		사무관 이재인	044-202-7193
		사무관 김정탁	044-202-7375
		사무관 윤주희	044-202-7160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국민취업지원제도, '참여의 문턱' 은 낮추고 '일을 배울 기회(일경험)' 는 늘립니다.

- ◆ 7.27.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·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
- ◆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

- 국민취업지원제도(한국형 실업부조)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,
  - \* I 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6개월, 최대 300만원)
  - II 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(최대 195.4만원)
  - \*\*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'20.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
  - \*\*\* 8.6. 기준 37.6만명 신청, 29.7만명 수급자격 결정·지원 중(추경 포함 64만명 지원)
-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,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·개선하고 있다.

### <1>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

-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,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,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다.
- 7.27. 법 개정에 따라, 앞으로 청년(18~34세)은 가구 중위소득 120%\*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.

\* ('21년) 4인 가구 기준 585.1만원 → ('22년) 614.5만원

- 종전에는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,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,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**기타 제도개선 사항**

- ① (3.29.)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,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
- ② (7.1.) 청년 재산요건 확대(3억→ 4억),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(연 매출 1.5억→ 3억) 등
- ③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,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·운영 등

- 또한,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\*한다.(7.1.~8.10. 시행령 입법예고)

\* (현행) 중위소득 50%(‘21년 4인 가구 기준 243.8만원) 이하, 재산 3억원 이하  
 → (변경) 중위소득 60%(‘21년 4인 가구 기준 292.5만원)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

□ 아울러,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.

-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,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(23개소/21.4월)하여 운영해 왔으며,
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\*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(8월 예정)

\* 「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(7.13.)」 관련 보건복지부,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

-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(21.6월~)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,

-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, 청년도전지원사업(21년 신설 5천명)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- 이 외에도, 쉼터청소년,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·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,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,

-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(임신·출산, 질병·부상, 의무복무 등)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## <2>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

- '일경험 프로그램'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,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.

### 일경험 프로그램 개요

- ◆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
  - (체험형)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(日 2.1만원)과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6회)을 받으며 직무 경험
  - (인턴형)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

-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, 참여자를 발굴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와,
  - 8월초 기준, 27천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고, 2.8천여개 기업에서 총 13천명 규모(1회 기준, 추가 운영 가능)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.
    - 다만,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,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.
  - 6월부터는 참여자-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·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,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.
    - \* 월별 순 참여인원(25백명): (~5월) 574, (6월) 607, (7월) 1,021, (8.1.~8.6.) 259
    -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,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,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.
- 현재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화63시티, 금호익스프레스(주) 등 약 2,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,
  -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,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·선발할 예정이다.

##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

- ◆ **(한국농어촌공사)**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공기업 중 최초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1차 144명을 대상으로 멘토 배정 및 직무능력 함양 지원
- ◆ **(지웰컴)*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으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영상촬영, 편집, 실내 디자인, 사무행정 등으로 7명 참여 중이며, 추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
- ◆ **(한국전력공사)** 8월부터 138명이 일경험 참여 중으로, 참여기업에서 희망했던 영어동시 통역 가능자가 실제 매칭이 되어, 참여기업에서도 일경험 참여자 역량에 만족감 표시



**참여자 소감** "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취업성공의 토대를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,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."

- 8~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(서울),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, 한국승강기 안전공단, 한국교통안전공단, 국방기술품질원, 신세계 대전 등 우수한 기업·공공기관 등에서 참여\*할 예정으로, 수급자와 상담사 간 협의해 신청 가능\*\*하다.

\* 계속적으로 계획인원 협의 중(외식운영관리, 모바일뱅킹 안내, 사무지원 등의 직무로 참여 예정)

\*\* 단, 참여기업별로 계획 인원이나 자격요건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,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요건 등 확인 필요

□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“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,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면서,

- “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,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「구직자취업촉진법」 시행(7.27.)을 계기로,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‘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’가 진행된다.

- 이번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·오프라인 홍보 이외에, 주변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동 제도를 접하고 참여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,

- 참여자가 지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하고(~9.30.), 추천받은 지인이 제도 참여 신청(~10.31.) 후 올해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,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.

\* 이벤트 참여페이지: ▲(페이스북) <https://bit.ly/3jjyBaW>, ▲(카카오) <https://bit.ly/3yo0SmW>, ▲(트위터) <https://bit.ly/3xkxywx>

- 또한,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「월간내일 8월호」 (웹진 링크: <http://www.labor21.kr/webzine/vol55/index.html>)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- 웹드라마 <종.종.소> 출연진인 충범이(배우 남현우)와 예영이(배우 진아진)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소감과 우수 상담사례로 선정된 주인공(상주고용센터 김수연 상담사, 이천호 내담자)들의 생생한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. <종.종.소> 출연진들의 참여 영상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될 예정이다(8월 2주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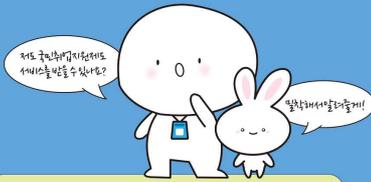
※ 붙임: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포그래픽

	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사무관(제도개선/☎044-202-7193), 김정탁 사무관(일경험프로그램/☎044-202-7375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</p>
공공누리	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

취업  
이름

내 일을 만나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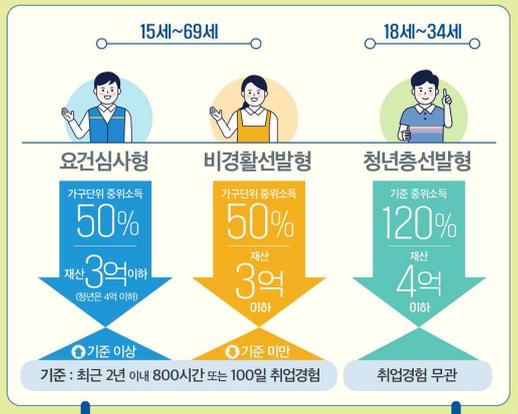
# 국민취업지원제도



## 국민취업지원제도는?
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 제도입니다.

###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취업지원 + 구직촉진수당



###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단계별 취업지원 + 취업활동비용



##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

### I 유형 구직촉진수당

**구직촉진수당**

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

최대 300만원  
월 50만원 × 6개월

### (공통) 취업지원서비스

- 1 취업상담: 직업심리검사 / 구직경로 설정
  - 2 직업능력 향상: 직업훈련, 일경험,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
  - 3 취업알선: 이력서면접 상담 / 동행면접
-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\*  
(중위소득 60% 이하) 지원  
\*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 시

### II 유형 취업활동비용

**참여수당**

최대 20~25만원  
\*참여유형, 참여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수당 상이

**훈련비**

직업훈련참여시 훈련 참여수당  
월 최대 284,000원  
→ 최장 6개월간

**신청 방법**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([www.work.go.kr/kua](http://www.work.go.kr/kua))



**문의사항** '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' 이용 : 카카오톡 채팅창  
→ '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' 검색 → 채널 추가 후 이용  
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

